

다고 하였다. 또 그自尊心만은性格에他人에게一切의話이라도
빌려가지안았을것이다. 그러나死에直면할것을하여는畢竟
그런한痛苦를受하게되는것이다. 孔子도泣하고 耶蘇도悲
鳴을지르는死의안락은實然의그리치안을주는것일것인가?
이러기死를直면하여안락가운데死의容態로부터離하여는것
을望할사람이불복에일다. 悲慘하게보려는나

生이란어허한것인가細胞의組織의巧妙하도어어何機能을하
는同時에外界의物質을反映認識하는것이요 死란어어何의나
細胞組織의破壞되고그機能이停止되어外界의物質을反映認識
할수없는것이다. 그러면所謂長生不死이니永生이니하는말은
어허한말인가? 그러나空間과時間의物質不滅의原則은잇솔
지언정永遠이라하는것은없다. 모든것을生成發達死滅의見
地에서본다면 人間만그原理에서벗어날수는없는것이다. 物
質의生成組合에依하여생기엇는形態가 物質의死滅破壞에依
하여死滅한다. 人間은萬物의靈長이니天地人三才나하고사
람에게무슨靈長가잇는것이생각하는것이올랐것이다. 하는것
이唯物論者의말이다.

筆者는宗教에對하여門外漢이다. 더욱佛敎에對하여 門外
漢이다. 佛敎의見地로보아生死問題란어허한것인가
生從何處來, 死向何處去, 生也一片浮雲起, 死也一片浮雲
滅, 浮雲自體本無實, 生死去來亦如是

이러한古詩가성각난다. 그러나佛敎의奧妙한見地로보면 이
러한人生觀은幼穉淺薄한것일것이다.
宗教의修養이란어허한것일것지모르나삼배의安心하고살고
죽음에의安心하고죽는다느것이必要하다죽음에의안락가위하
는것가치, 슬퍼하는것가치, 창피한일은없다年輩의老少는不
問하고

世上의死는幽靈이라하는것을흔히말한다. 그러나君이죽은
後에내안락은幽靈이라하는것이나라나는것이다. K洞窟의C敎
堂안쪽지나가려면 S君이불속나오며「어어두운의 어둠을
가나?」하고웃는것이다. 무슨말을부처는것도있고길에서
웃음마조치며, 걸음웃고손을잡는것이다.
이러한精神狀態가오래繼續하면 成靈靈을보게될는지모른
다. 그러나정말幽靈의나라나지안을것은無論이다.

古今東西의哲學史를뒤져서아시원스런生死觀의있다. 모든
細察精羅한말은이다. S君이죽은後에 나는死가됨시내에게
것가유게은것가치생각된다. 그래서이러한말을草하고실존것
이다. 佛敎에는善智識의만다. 極大의佛으로本紙上에서
見解가잇기를잇는다

X X X X X

朝鮮佛敎의國民文學(續)

—佛徒의넌간往生文學—

孫 晉 泰

다음에紹介시키는三種歌詞(西往歌, 自發歌, 勸住歌)는慶南東萊郡龜浦盲人崔順道所藏無題寫本을全寫
한것이다. 該寫本은朝鮮文으로되어잇고 往々何處去困難한簡所드임지안이하엿으나 此의死는明白한誤傳
만을訂正하고正漢字를삽어表記하되두고서한다.

三、西往歌

나도	이름만칭	父母의	下直하고	般若劍을	손에들고	念佛衆生	살어두고
世上의	인제러나	單瓢子	一柄의	五羅山	드러가나	三乘집의	
無常을	생각하니	普賢杖을	빗지들고	諸山은	恨수하고	一乘도을	살아두고
다그것	것이로세	名山을	차차드러	四相山의	더욱알다	積風은	順히불고
父母의	키친얼굴	善智識을	親見하야	六根門頭에		白雲은	첫도는대
죽은後	후를업다	마음을	박키라고	자취업는	도죄은	人間을	생각하나
죽은다	생각하야	千經萬論을		나머들며	하난中의	실루고	실은지라
世不盡	후리치고	六賊을	삼으라고	煩惱心	베쳐노로	念佛하든	衆生들우
		障空馬를	벗지라고	智悲를	배도모와	死生을	살라하고
				三界하든	건디질죄	世事만	람차하야